



세월호 4주기...아직도 먼 진상규명·미수습자 수습

지난 2014년 온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오는 16일 4주기를 맞이한다.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은 아직도 진행중이고, 미수습자 5명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목포신항에서는 현재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 규명을 위한 세월호 선체직립 등 막 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아직 돌아 오지 못한 5명=마지막 희망 결다 =현재까지 미수습자는 단원고 학생 박영인·남현철군, 단원고 교사 양승진씨, 일반인 승객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 군 등 5명이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된 이후 미수습자 중 첫 유해는 선체 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해 5월4일 진도 사고해역에서 발견됐다. 감식결과 단원

다음달 말 선체 직립 완료 후 기관실 진입 본격 수색작업 선체 원형보존 검토...선조위 8월 최종보고 의혹 해소 주목

고 교사 고창석씨로 확인됐다. 마지막 희생자를 수습한 지 920일 만이었다. 이어 세월호 선체 수색에서 단원고 조은화양, 허다운양, 일반인 이영숙씨가 확인된 이후 326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미수습자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체 직립 작업을 목포신항에서 진행하고 있다.

예정대로 다음달 31일 세월호 선체직립이 완료되면 선조위는 접근하지 못한 기관실 등을 진입해 마지막 미수습자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선조위는 최종적으로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을 오는 6월말로 예상하고 있다.

◇안전교육 의무화...내 자신은 내가

지킨다=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곳곳에 안전체험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등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진도 맹목항 인근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해양안전 체험시설이 있는 국립해양안전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임회면 남동리 일원에 10만㎡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안전관 건립에는 총 27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 등 전국 자치단체들 도 어린이 등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조성해 무료 교육에 나서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선 해상 사고시 학생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수영교육을 의무화했다.

◇세월호 선체 원형보존...후대에 교훈

남긴다=선조위는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선체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과 참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배 외형은 보존하고 선내 일부를 개조해 추모관, 국민안전 교육관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 앵커(돛) 등 세월호 상징물만 남겨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선조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선체 보존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선조위는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때 선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으로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선체 원형보존'이 유력해 보인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아직 선조위 내부에서는 수색이 끝난 후 세월호가 어떻게 보존될지 논의된 적 없다"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세월호를 원형으로 보존하는 방안

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최종 보고서·백서 발표...침몰 원인 규명 나선다=선조위는 활동기간이 4개월 연장됨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세월호 추가 수색과 조사를 마치고, 오는 8월 6일까지 최종 보고서·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침몰 원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할 지도 관심이다. 특히 논란이었던 외부충돌설과 세월호의 급격한 침수,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에서 모형배를 이용해 실험하고 있는 급변침의 결과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선조위는 최종 보고서와 백서 발표 이후에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하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경찰청 특별수사단 MB 때 '땃글공작' 관련 광주경찰청 등 압수수색 의혹 경찰 부산·광주 근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땃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2일 부산·광주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두 지방청에 수사진을 보내 땃글 의혹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명박 정부 집권기인 2011~2012년 땃글 공작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경찰관이 현재 부산·광주청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팬'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땃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정책 지지 땃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찰청 본청에 수사진을 보내 보안국장실과 보안 1~4과 등 보안국 전체 조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끝나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뒤 추후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 내부에서 전국 경찰을 동원하게 수사해 달라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광주의 경우 보안과 사이버팀 창설이 작년에야 이뤄져 연관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진도·목포·광주 등 전국 곳곳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진도와 목포,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오는 1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진도군과 '세월호 참사 진도군법률근대재위원회' 주관으로 진도 실내체육관과 진도항 일원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와 미수습자의 온전한 귀환, 안전문화 확산의 의미 등을 담은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행사가 열린다.

또 같은날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는 세월호광주시민상추모임 주관으로 '기억하라 행동하라'를 주제로 추모문화제가 진행된다.

앞서 오후 5시에 같은 장소에서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기리며 신발 304켤레를 이용해 세월호를 만드는 퍼포먼스 등

이 열린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에서는 4월 한달간 아픔을 기억하고 나누는 추모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지역 공동실천회의는 4·16연대,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지난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목포신항 등에서 '기억하라 행동하라'는 주제로 전시, 공연, 토론회, 문화제가 포함된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를 진행중이다.

15일 오후에는 목포신항에서 기억문화제 및 집담회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 목포시 오거리문화센터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린 압화와 편지를 전시하는 특별기획전 '너희를 담은 시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수색작업 12일 새벽 0시42분께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km 해상서 6명이 탄 신안선적 15t 근해자망 어선 2007연호호가 탄자니아 선적 냉동화물선(4981)과 충돌해 뒤집혔다. 해경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신안 해상 어선-화물선 충돌 3명 사망·3명 실종

신안 해상에서 어선이 외국 화물선과 충돌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12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37분께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km 해상서 승선원 6명이 탄 신안선적 15t 근해자망 어선 2007연호호가 탄자니아 국적 냉동화물선(4981)과 충돌해 뒤집혔다.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새벽 0시 39분께 두 선박 표시점이 겹쳐 보이는 관계 정보를 해경 122상황실에 통보했다. 2007연호호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는 새벽 0시 37분께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합정을 급파하고 주변을 지나는 선박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새벽 0시 42분께 다른 외국 선박을 통해서도

2007연호호 충돌 사고를 접수했다.

2007연호호 승선원 1명은 사고 발생 50여분 뒤인 새벽 1시 25분께 해경 요청을 받은 민간어선에 의해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해경 잠수원들은 오전 8시 26분과 27분께 어선 내부에서 선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실종자 3명을 수색하고 있다.

사망자는 선원 장모(63), 강모(53), 이모(51)씨 등 3명이며, 선장 김모(38세)씨와 선원 김모(49), 고모(38)씨가 실종 상태다. 숨진 선원 3명의 시신은 현재 목포의 한 병원에서 운구됐다.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고 직전 VTS 관제화면상에는 화물선이 운항 중 갑자기 속도를 줄였고 어선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다.

해경은 2007연호호가 사고 전부터 화면상에는 정지한 상태로 나타났으나, 신호가 끊겨 실체는 이동중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사고 직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고어선 선적지인 신안군에 사고수습분부를 설치해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실종된 선원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

노회용 전 등구청장 뇌물수수 무죄 확정

납품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용(56) 전 광주 등구청장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5년 7~11월 구청에 조명설비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위가 아니더라도 납품업체 선정 등 물품

구매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는 돈을 선뜻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돈을 줬다는 시점과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금은방 절도범 SNS로 딱걸렸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고등학생이 SNS를 통해 직접 추적에 나선 가게 주인의 아들에게 16시간 만에 붙잡혀 경찰서행.

◇1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17)군은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금은방에서 손님이 가장해 귀금속을 구경하다 700만원 상당 금팔찌 2개(30돈)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범인을 잡으려 나선 업주의 아들 김모(25)씨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올렸는데 이를 본 후배가 "아는 사람인데 지금 서구의 한 모텔에 있다"고 연락해줌에 따라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료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메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10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3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정가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정가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정가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정가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